

<부록1>

## 유진오의 <빌딩과 黎明>

양승국\*

유진오의 <빌딩과 黎明>은 『조선문예』 2(1929. 6)에 발표된 작품이다. 그 동안 『조선문예』 2호의 목차만 확인되었을 뿐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유진오의 이 희곡도 그 전모를 알 수 없었다. 다행히 최근 북한에서 발간된 『현대조선문학선집 17-1920년대 희곡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에 이 작품이 실려 있어 이제 그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

유진오는 소설가로 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빌딩과 黎明> 이전에 이미 <披露宴>이란 희곡을 『조선지광』(1927. 10~11)에 발표한 바 있고, 『시대공론』(1932. 1)에 발표된 <朴僉知>는 ‘이동식소형극장’(1932. 3)과 ‘메가폰’(1932. 6)에서 공연될 정도로 당시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극작가이기도 하다.

비록 공연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빌딩과 黎明>은 그 내용으로 보아 1920년대 후반의 프로연극운동을 의식하고 씌어진 작품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제목에서 보듯 이 작품은, ‘빌딩’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배경으로, 실직당한 한 노동자의 순수한 인간애와 투쟁의 염원을 ‘여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하 25도가 넘는 추운 겨울날 밤 빌딩 밑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절친 노파와 그의 손자인 아기를 두고 부르주아인 취한과 실직 노동자인

---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실업자’가 보여 주는 구제 방법의 대비를 통해 작가는 노동자의 순수성과 건강한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어떻게든 아이만은 살려야만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실업자의 한 마디는 이 작품의 상징적 저항성까지 드러내 준다. 그리고 이는 그 다음날로 계획된 파업 투쟁의 여명이 밝아 오기를 기다리는 무대 배경과의 조화에 의하여 더욱 그 극적 가치를 받는다.

이렇듯 이 작품은, 한밤중부터 이른 아침까지의 시간과 빌딩 숲 속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공간의 배경 속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군과 분명한 주제를 통해서 소기의 ‘선동·선전(agitation·propaganda)’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일방적인 주장과 외침은 적절히 통제되고 있어 유진오의 뛰어난 극작술을 잘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빌딩과 여명>은 그의 <박첨지>와 함께 프롤레타리아 희곡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자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원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서 북한에서의 표기를 그대로 옮겼으며 띄어쓰기만 현행 맞춤법에 근거하여 바로 잡았음을 밝힌다. 이와 함께 등·퇴장의 무대지시는 북한에서의 표기와 달리 알아보기 쉽게 한 줄씩 띄워 적었음을 밝혀 둔다.

## 빨딩과 려명 (1막)

유진오

인물  
로파  
체육청년  
실업로동자  
취한1, 2, 3  
의사  
로동자 다수  
기타

대도회의 거리 일각. 겨울밤, 어둡다. 다만 한 개의 기등만이 푸르고 검은 빛을 근처에 던지고 있다. 장군의 장화같은 빨딩의 발, 빨딩이 갈라진 곳으로 멀리 얼어붙은 기하학적 하늘이 보인다. 그 가장 밑바닥에 거지 로파가 흰 누데기 덩어리를 안고 웅크렸다. 물론 이 생물은 그의 입을 열어 소리를 내일 때까지 거의 눈에 띄우지 아니한다.

(사이) 인해 바람이 한 뭉치 전선을 울리고 지나간다. 동시에 행인1, 3인

행인갑 (물론 엄한기의 복장) (고개를 목도리와 외투 속에 자라같이 움츠리고 발이 땅에 안 닿게 걸어가며) 으호…… 에 출기도 하다. 까막 까치 다 얼어죽겠네. 으호……

행인을 (똑같이) 에 추어. 오늘 저녁도 또 보나마나 강시 나가는 똑 맞쳤네.

행인병 낮에도 제법 따뜻했는데 이게 별안간 웬 일이야. 령하 25도는 된 모양인 걸.

행인갑 그놈에 눈이 좀 뿌리고 나드니 날이 확 개이고 그 지경이지. (시계를 꺼내 보며) 벌써 두 실세. 어름어름하다가도 강시 나네. 으흐…… 자- 어서어서.

(행인 무대를 가로건너 퇴장. 동시에 뿔뿔한 구석에서)

로 파 한 푼만 줍쇼! 으흐 나-리, 한 푼만 줍쇼. 아이구 추어. (로파 고개를 든다. 확실히 유령의 화신이다. 흠어진 머리, 누테기, 이는 다 빠지고 앞이 두대만이 상아 모양으로 내뻗었다.)

로 파 네- 한 푼만 줍쇼. (비로소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아이구. 금방 누가 있더니, 정신이 깜박 했었다. (바람이 전선을 울린다. 어디로부터인지 찢어진 종이 쪼박 하나가 바람에 불려 날려 들어온다.) 예-이, 휘-바람은 왜 이리 부노, 예이 으흐……

(긴장한 청년, 누르스름한 복장, 털로 짠 스틱킹을 신고 손에다 기다란 장대를 들고 가장 용감스레 등장)

청 년 흐흠 령하 25도, 그까짓 꺾꽂이야. (팔을 짓는다.) 이렇게 이렇게 (장대를 짚고 두세 번 땅재주를 넘는다.)

로 파 한 푼만 줍쇼. 네…… 으흠 얼어죽겠습니다. 네, 한 푼만 줍쇼!

청 년 (장난하는 것을 들켰기 때문에 깜짝 놀라) 예- 무야 무야.

로 파 (청년의 다리를 붙들며) 네- 한 푼만 줍쇼. 네, 얼어죽겠습니다. (한 손으로 무릎에 안은 누테기 덩이를 다시 꺼당기며) 이 어런 것 봅쇼, 이 손주 새끼 봅쇼. 한 푼만 줍쇼, 네!

청 년 (다리를 뿌리치고) 아닌 밤중에 동냥은 웬 동냥, 얼어죽긴, 아, 요 까짓 추위에 얼어죽어. 암만 늙었기로, 사람은 운동을 해야만…

… 몸만 튼튼하구만 보면 이까짓 추위쯤이야 어렵었던 말이야. 자자, 이 내 팔 (팔을 들여다보고 만족한 듯이) 야구, 철봉, 말타기, 유도, 오늘 저녁 럭기 대회에서 일등상을 탄 내 팔을 좀 보아. 끄떡없단 말이야, 응, 이 내 팔 (바람이 전신을 울린다.) 흐—옥 (기침을 한다.) 애쉬 애쇄 (급히 소매를 걷어내리면서) 으—안 돼. 감기는 무서워. (별안간 후회한듯 말소리를 고쳐) 헌데 늙은이 사정도 안되었는걸, 마침 또 한 폰도 없는걸

(청년 퇴장.)

로 파 아이구 휘! 날은 안 새고, 이걸 어떡하나. (사이)

(실업자, 40전후, 초졸한 모양, 고개를 푹 수그리고 힘없이 들어온다. 몸은 가늘고 깊은 안색은 창백하다.)

로 파 아이구 나리님— 나리님 이걸 어떡하우. 네, 얼어죽겠구려.

실업자 (자기 생각에만 팔려서) 음, 휘— 비러먹을 (별안간 주먹을 쥐고) 비러먹을! 아 그간 놈! 이놈들 너이들두.

로 파 (실업자의 다리를 붙든다.) 나리님, 으호…… 사람 좀 살리우.

실업자 (놀라) 무엇? (로파를 들여다보고) 없소. 한 폰도 없어. 나도 오늘 한 끼밖에 못먹었는데— (그래도 더 한번 주머니를 찾아보고) 없소. 한 폰도 없소. (도로 주먹을 쥐고) 이 놈들. 래일 아침만 돼 보아라. 눈칼에 불이 번쩍 날터이니. 흥, 놈들.

로 파 (그대로 가려는 실업자의 다리를 놓지 않고) 밤은 늦구 날은 안 새구 춥긴하구 나 같은 늙은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 어련애나 좀 나리 덕택에 살려 주세요, 네, 이것 좀 살려 주세요, 이걸 좀 살려 주세요, 나리가 안 살려 주면 행인도 인제 끈치고 이것까지 마저 죽을 거야요. 네, 나리. 이걸 좀 살려 주세요. (우는 소리가

난다.) 네 네, 네, 나리 이걸 좀 구해 주세요.

실업자 (감동되어) 어린애요.

로 파 (누테기를 끌어당기며) 네, 손주 새끼요. 손주 새끼요. 세 살 먹은 새끼요.

실업자 (억지로 누테기를 떠들고 본다.) 음, 허지만 어떻게 하나. 나도 집도 없구 돈 한 푼 없구 일할 구녕까지 뺏긴 사람이니, 나도 까딱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얼어죽을지도 모르는 판이니.

로 파 (잘못 듣고 두 손 맞여 절하며) 아이구 고마워, 나리님. 아이구 고마워라. 인제 나도 눈을 감겠소.

실업자 (어찌할줄을 모르고) 여보, 여보. 헌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로 파 이게 애비도 없구 예민 도망가구 내 손으로 키울라던 자식인데 귀동자랍니다. (바람이 분다.) 으-흠- 그래두 나는 (별안간 새기운이 난 것같이) 나는 고생을 해두 나는 죽어두 이걸 잘 살게 하겠드니 인제 마음을 놓겠습니다. 씻은 배추 즐기같이 길러 주세요. 길러 주신댔지. 나리 고마워, 고마워, 아이구 고마워라. (절로 기운을 잃고 고개를 떨어뜨린다.) 후- (무의식적으로) 돈 한 푼만 줍쇼, 네-나리 돈- (말을 마치지 못하고 떨기 시작한다.) 으흐.....

실업자 (놀라서) 여보, 정신차리슈. (그래도 떨고 있는 로파를 붙들고) 정신차려요! 이런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우. (로파 떨기를 끝치고 즐기 시작한다.) 허. 이거 탈났구나, 탈났다. (로파를 흔들며 큰소리로) 여보! 여보! 정신차류!

로 파 (정신없이 함장한다.) 고마워라- 인젠 수길이-

실업자 (소리 지른다) 여보! 여보! 정신차려!

로 파 (놀라 깨서) 아이구 또 깜박했어. 어떡하나. 날이 새야 날이 새야. (실업자를 보고) 아이구, 참 고마워라. 나리님 참!

실업자 살려- 내가 내가. (이어 결심한 듯이) 네, 걱정 마슈, 손자님은

내가 말으리다. 세상 없는 일이 있드래도 얘기는 내가 살리리다.  
 (그러나 또 어찌할줄을 모르는 모양) (그는 일어서서 좌우를 둘러보나 벨딩 문은 굳게 닫혔다.) 천만에, 열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이 놈들한테도 한 번 자선을 청해 본담, 예잇, (로파를 보고) 잠간만 그렇게 계시우. 줄지 말구요. (벨딩을 쳐다보고 좌우를 둘러보고 한다.) 뒷문 창 하나 없다. 망할 놈들, (벨딩 정면으로 가서 쇠문을 두드리며) 여보! 여보! 문을 열우, 문 열우, 여보.

(이 때 고급 월급쟁이 같은 취한이 3인 비틀걸음을 치며 등장)

취한1 (키가 한없이 크다.) 으어— 흙, 흙, 흙, 예 헤 헤이어 좋다 좋다  
 (그의 목소리는 차차 작아진다.) 좋다 좋다.

취한2 (키가 한없이 작다.) 이 자식 좋긴 무에 밤낮 이리 좋아.

취한1 음 휘. (벨딩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수그리고 즐기 시작한다.)

취한2 이 자식아. 이거 무슨 꼬락지야. 술먹고 자면 얼어죽는다. 이 놈이 으음— 음. (하품을 하고나서 목소리가 차차 작아진다.) 얼어죽어, 얼어 얼어 죽어 죽어 죽어…… (역시 벨딩벽에 기대서서 조을기 시작)

취한3 (조금 떨어져 등장) 으어허…… 으허어…… 이 놈들 다 녹았구나. 산월이 산월이 으어허…… (비틀비틀하며 오다가 실업자에게 붙들린다.) 음, 음 에—이. 망할 자식. (주먹을 번쩍 들며) 이 놈아, 교통 방해야. 요런 류치장 구멍에서 고대로 썩을 놈, 아닌 밤중에 웨 남의 집 문간 앞에서 아름답하냐.

실업자 (취한3에게 대답도 않고 돌아서서 문을 두드린다.) 여보 문 열우, 문 열어 주. (벨딩 속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다. 실업자 할수 없는듯이 옆에 붙은 금간관을 쳐다보고)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 그래두 열자는 놈도 없다. (다시 소리지른다.) 여보!

취한3 도적놈! (주먹으로 내리 때린다. 빗때려 그 바람에 비틀거리고 땅

에 넘어진다.)

실업자 (취한을 붙들어 일으키며) 조심하십시오.

취한3 (일어나며) 이 놈 보아라. 남을 탄죽을 걸어 넘어뜨린 놈이 너 이  
놈. 남을 탄죽을 걸어 넘어뜨리고 나서.

실업자 다치시지 않으셨소, 술을 자셨거든 조심을 하시오.

취한3 이 놈 도적놈이 이 놈, 뻔뻔스레, 아닌 밤중에 남의 집 문간에서  
어름어름하든놈이 이 놈 들키고나서는 적반하장으로 사람을 쳐  
이 놈.

실업자 (노하여) 무엇이 어째, 이 놈아, 점잖게 차렸거던 꺾데기값이나  
해라, 무어 도적놈.

취한3 이 놈 보아라. 흥 이 놈 보아라. (덤벼들어 실업자의 멱살을 든다.)  
이 놈 세상이 아무리 망했기로.

실업자 (마주 멱살을 들고) 어째고 어째.

취한3 이 놈 거지 같은 놈이.

실업자 어째 (취한의 뺨을 때린다.)

취한3 (비틀비틀한다. 그러나 취중에도 싸움이 별로 리롭지 못함을 알았  
는지 태도를 바꾼다.) (분함을 죽인 목소리로. 그러나 빈정대는  
소리로) 너가 형사냐? 순사냐? 사람은 왜 땅땅 치냐, 남의 망년  
회에 술 한잔 먹었기로 너가 무슨 상관이냐.

실업자 사람이 죽어 사람이 죽어 얼어죽어! 너도 정신차리고 다녀라. (멱  
살을 놓고 떠밀어 버린다.)

취한3 그럼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러지, (호걸풍으로 웃는다.) 으허……  
(되인다) 사람이 죽어 사람이 죽어 그래 무슨 말이야.

로 파 (떨기 시작한다.) 으호…… 아이우 으호…… 어린애를.

취한3 (흥내내며) 어린애를 어린애를 그리고 또 무어 옳지, 으호…… 으  
호……

실업자 (증오의 눈으로 취한3을 흘겨본다. 취한3의 멱살을 다시잡는다.)  
이 놈, 정신을 차려라. 아무리 술과 계집밖에 모르는 놈이기로



사람이 당장 죽어가는 걸 못보니 이 놈.

취한3 (겁을 내고 빌듯이) 아니 여보게, 왜 이러나. 내가 우리가 망년회 술 한 잔 망년회 술을 한 잔 했다는데.

실업자 술을 먹었으면.

취한3 (비렬하게 그러나 교활하게) 헤헤, 그래 술 한 잔 했지, 한 잔 했지, 응 여보게.

실업자 더러운 놈, (취한의 복장을 들여다보고 싶더니 무슨 생각이 난듯이 먹살을 놓고 곤담적으로) 아니 여보슈, 지금 나는 하필 술 자신 것을 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밤은 늦고 돈 한 푼 없는데 사람이 죽어가니 말이요. 더구나 어린애까지.

로 파 (정신없이 또 합장을 하고) 고마워, 고마워라, 나리님, 나리님.  
(로파 고개를 떨어뜨리고 조을기 시작)

실업자 탈났다. (로파에게 뛰여간다.) 잠만 들면 고만인데 사람이 죽네, (로파를 붙들고) 여보, 정신차유, 정신차유. (취한3을 보고) 이걸 좀 어떻게…… 네 어서 좀 어떻게……

취한3 (입을 벌리고 위엄을 회복하여) 예-예- 알겠소, 주린 사람이 추운 데서 즐기 시작하면 죽는 게외다.

실업자 글썸 그러니 말이지, (탄원하는 목소리가 울린다.) 나한테는 아무 수도 없고 지금 이 목숨 (누데기 덩이를 가리킨다.) 이 어린이 목숨까지도 살고 못사는 것은 당신 손에 달리지 않았소, 춥고 어둡고, 여보, 좀 이 사람들을 구해 달라 하지 않소.

취한3 (거만하게) 흥, 내가 무슨 상관인가. 내 손에 그 늑은이 생사가 달리다니, 하지만 춥고 배고프면 죽기도 쉽지. 그러기에 돈을 모아야 하는 것이야. 용돈을 모아야 하는 것이야.

실업자 (참고) 네, 그렇지요, 그 놈에겐 있는 놈한테만 자꾸 더 붙으니까 탈이지.

취한3 (몸을 떠다.) 으호…… (바람이 지나간다.) 응! 흥 어썸다. 술 돌아 깨는걸. 얼어죽겠는걸, 나아말로 얼어죽겠는걸 (취한1, 2 흔들어

깨운다.) 야, 야. 이보게, 정신차려 정신차리게. 얼어죽네 얼어죽네. 일어나게.

로 파 (또 정신없이 함장) 고마워 고마워라. 나리님 나리님. (만족한듯이 병긋이 웃고 다시 고개를 떨어뜨린다.)

실업자 (로파의 얼굴을 만져 보고 그의 입에 손을 대여 본다.) 식어가네, 식어가네. 여보 정신차리슈.

취한3 (취한1,2를 흔들며) 얼어죽네, 일어나게 어서어서.

취한1 (깨어난다) 으-으 호으..... 호으으 어- 추어.

취한3 옆에서 강시가 나는 모양일세. 어서 가세, 술도 달아난 모양일세.

취한1 어 흥하게 춥다, 으호 으호호.

로 파 (고개를 들고) 아이구 이 애를 어떡하나 으호호 으호호 인젠 인젠.

취한3 (아직도 입 속으로 무엇을 웅얼웅얼한다.) 히-잉 히-잉 (비렬하게 웃는다.)

실업자 (로파에게) 정신이 좀 납니까. 정신을 잃지 마슈, 얼마 있어 날은 샐테구 가만히 있어요. (취한3에게로 간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어떻게.

취한3 (취한 1, 2를 잡아일으켜)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실업자 (취한3을 붙들고 애원한다.) 네 령감, 불쌍한 사람을 좀 살리십쇼 그려.

로 파 (이 동안 다시 조을기 시작한다.)

취한1 무러 무에라 이게 웬 자식이야.

실업자 (취한3에게) 네 령감, 그저 좀 불쌍한 인생을 좀 살리십쇼.

취한1 이게 웬 망할.

취한3 (취한1을 제지한다.) 췌 이 사람이. (위엄을 차리고 걷기 시작한다.)

실업자 네 네 령감.

취한3 (돌아다보지도 않고 걸어가며) 자네 사정도 알겠네. 응 세상 사람

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 이 담엘랑 이렇게 궁하게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게.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질렁질렁하다가 동전 몇 푼을 꺼내여 역시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 준다. 동전은 땡그렁 소리를 내고 근처에 흩어진다.)

실업자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친다.) 이 놈이.

취한3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야 하느니. 그 로파를 잘 구제하게.

(취한들 유유히 퇴장)

실업자 (정신을 잃은 것같이 잠깐 섰다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취한들의 등 뒤를 증오의 눈으로 쫓는다.) 이 놈들을.

로 파 (또 일어난다.) 아이구 깜빡했네. 으흐 으흐흐흐 어떡하나 (실업자를 보고) 고마워 부디 잘 맡아 주슈. 평생 소원입니다. 하지만 날이 (또다시 즐기 시작한다.) 날이 날을 (차차 소리가 작아진다.) 날은아-니-새-고-날-이. (누데기 우에 가만히 엎드린다.)

실업자 (로파를 돌아본다. 그러다가 다시 노기에 타는 눈으로 취한들 간 곳을 본다.) (사이) 놈들! 래일 보자. (로파를 향하고) 잠깐만 곧 가리다. (그는 엎드려 길 우에 흩어진 동전을 한 푼 한 푼 주으면서) 하지만 돈이 있으니 어떡하나, 이 밤중에. (몸을 떨고) 아이구 추어. (손에 집었던 돈도 자꾸 도로 떨어뜨린다.) 날이나 새이고 (돈을 다 집어가지고 로파에게로 온다.) 겨우 일전짜리 일곱 푼. 하지만 그나마도 어떡하나 날이 새야지.

로 파 ……

실업자 날이나 새면 (바람이 분다.) 으흐…… 이거나마 어디가 요기나 하지만.

로 파 ……

실업자 (비로소 놀라 로파를 혼든다.) 정신차류. 정신차류. (로파 아무 소

리가 없다.) 옛 (로파의 입에 손을 대 본다. 다음에 급히 가슴을 헤치고 손을 넣어 본다. 점점 더 놀란다.) 그렇게 쉽게! (벌떡 일어서 손에 든 동전을 팽개쳐 버린다.) 다 무어야. (한참 섰다가 급히 도로 옆드려 누데기 속에 손을 넣어 본다.) 어린애도 식어간다. (다시 일어나 좌우를 둘러본다.) 어떡하나. (사이) (그는 결심한듯이 누데기 덩이를 들어 안는다. 로파는 앓은채 쓰러진다. 실업자가 엄숙하게) 네 네, 안심하시오. 안심하시오.

(누데기를 안고 힘 없이 걸어간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좁쌀같이 가는 눈이 불려 온다. 그러나 뿔뿔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금같은 별들이 반짝인다.)

실업자 (몇 발자국 안 가서 우뚝 선다.) 이리로 가도 나는 굴조차 없는 놈이다. (그는 돌아서 몇 발자국 걸다가 또 우뚝선다.) 이리로 가도 갈 곳이 없다.

(사이. 그는 도로 로파의 옆으로 와서 로파보다도 좀 더 안쪽으로 웅크리고 앉는다. 사이. 바람이 아까보다 더 강하고 길게 분다.)

실업자 으흐 (별안간 고개를 떨어뜨린다.) 오오, 곤하다, 곤하다. 으흐 (떨기 시작하다.)

-오래 동안-

(뿔뿔 사이로 보이는 하늘에 류성이 좌우로 날은다. 멀리서 야경의 박수치는 소리)

-오래 동안-

실업자 (놀라 깨인듯이 고개를 들고 누데기 속에 손을 넣는다.) 오, 아직 살았다. 오-오-오-

(그는 목소리가 차차 작아지고 졸음이 오는 모양이다. 조울지 아니하  
랴는듯이 그는 고개를 자꾸 돌리다가 자꾸 떨어진다.)

—오래 동안—

(닭 우는 소리 멀리서 꿈같이 울린다. 바람이 한 뭉치 지나간다. 이어  
절대의 적막, 잠깨기 전의 도회의 숙면.)

—오래 동안—

실업자 (놀라 깨난다.) 깜박했다. 으흐 (전신을 떤다.) 오—오—오 으흐—  
(떨리는 손을 누데기 속으로 넣어 본다.) 아직 살았다. 더 차다,  
으흐 (무엇을 찾는듯이 근처를 둘러다 본다.)

실업자 어린애는 살아야 살아야. 날이 새면 날이…… 으흐 오—오—오—  
나도 날이 새야 일을, 일을 (다시 누데기 속에 손을 넣는다.) 더  
차네, 더 차네.

(사이)

실업자 오, 하지만 어린애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그는 결심한듯 자기의  
웃옷을 벗어 누데기 덩어리를 감는다.) 어린애는 살아야……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 실업자 꼬박꼬박 졸기 시작한다. 하늘에는 희  
미하게 새벽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실업자 (졸면서) 살아야— 살아야 남은 일을……

(사이)

(별안간 날카로운 공장의 기적 소리)

실업자 (놀라 깬다.) 오 기적, 기적, 나를 부른다. 일을 해야 한다. 약속한  
시간. 으흐…… 날이 새였다— 일—을 (아주 기운을 잃은듯이 누

데기 우에 앞드린다.) 동-모-

(사이)

(로동자3인 그들은 출전하려는 전마와 같이 활기가 있다.)

로동자1 알았다. 그러면 명령대로 하면.

로동자2 놈들, 오늘 아침에두, 우선 스틱부터 안 뿔테니. 카이제루 수업  
끝에 고드름이 장관일라.

로동자3 아서라 길가에서 쓸데없이 (로동자1에게) 그럼 부탁하네.

로동자1 걱정 말아. 그럼 군호에 어그러지지 말라.

로동자2 (넘어진 로파를 보고) 앓.

로동자1·3 (동시에) 앓 강시다.

로동자2 들썩.

로동자3 들.

(로동자들 연해 나온다.)

로동자4 제기 비러먹게 춥다. 응. 무어 강시.

로동자5 거지로구나. 내외다.

로동자3 누구 의사 불러오너라.

(로동자들 10여명이 시체를 둘러싸고 서서 떠든다.)

소리1 누데기 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소리2 옷저고리까지 벗어서 똥똥 싸몽쳤네.

소리3 재미 무슨 보물덩이나 돼나.

소리4 누구 꺼내 보아라.

소리5 (돈 한푼 얻어들고) 이것 봐라 재수가 터질라면 제-미 일전은 어

디서 공으로 나나.

소리6 이놈 제-기 (시체를 보고) 죽을만치도 됐는걸. 저 빠드렁이 보아.

아흔 아홉은 됐겠는걸.

소리7 누데기를 펴 보아라. 누데기를 펴 보아라.

소리8 너가 펴 보려무나.

소리9 누구 안 펴나, 제-미.

(그 중의 한 사람 실업자가 안은 누데기를 빼낸다. 모든 시선이 모인 가운데 누데기 속에서 뺏뺏 얼은 어린애가 나온다.)

소리10 죽었나.

소리11 살았을가.

소리12 죽었지 살긴 무에 살어. 재미 어저녁 같은 추위에 밤새도록 얼어 빠진게 살어.

소리13 (별안간 놀란 소리를 지른다.) 김수군이, 김수군이다.

(큰 동요, 로동자3이 떠든다. 그들은 실업자를 중심으로 모여든다.)

소리14 김수군이 !

소리15 김수군이가 얼어죽어, 얼어죽어.

소리16 틀림없네. 김수군이 틀림없네.

로동자3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뛰어나게 날카롭게) 누구 의사한 데 급히 갔다오너라.

소리17 김수군이가 웬일일가. 왜 여기서 얼어죽었을가.

소리18 그저께 우리 공장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소리19 그 사람이다. 일상 허허하고 웃든 사람이다.

소리20 <신사> 령감이란 별명듣던 사람이다.

(이하 1페이지 삭제당함)

로동자1 (눈물겨운 소리로) 그는 어제밤에도 늦도록 우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몹시 주리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는 천만에 저녁까지 배불르게 먹었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의 공장의 기적 날카롭게 울린다.)

로동자3 두 번째 기적이다. 동무들, 두 번째 기적이다. 약속하였던 시간이다.

소리들 가자 가.

로동자3 (누데기에 찢 어린애를 안은 사람에게) 너는 여기 있다가 의사가 오거든 좀 보아라.

(이하 3행 삭제)

로동자 여기 이 사람부터 먼저 좀 보이주세요.

의 사 (실업자를 진맥한다.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음 벌써 숨이 켜는데. 안 돼. (로파를 진맥한다. 역시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안 돼, 안 돼, 또 어린애는.

(안고 있는 사람 누데기를 내민다.)

의 사 (진맥해 보고) 음—음, 어린애는 아직 생명이 있소. 치료만 잘하면 넉넉히 소생되오. 얼어서 죽었다기보다 숨이 막힌 모양이니까.

로동자 그러니 그럴수 있나. 그래 이 사람은 아주 죽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아 주세요.



의 사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안 돼 안 돼, 맥이 아주 끈쳤는걸. (그러면서도 다시 실업자의 가슴을 헤치고 진찰해 본다. 별안간 의외의 빛) 옛, 아까는 확실히 절명했었는데. (다시 진찰한다.) 에 확실히 맥이 도는걸.

(실업자의 입이 힘없이 열려 무엇인지 들리지 않을만치 중얼거린다.)

(공장의 기적이 황황하게 울렸다.)

—막—